

청소년과 함께 걷는 이들의 오래된 직무(*Antiquum Ministerium*): 주일학교 교리교사 신원과 역할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이진옥 · 윤만근

돈보스코청소년영성사목연구소 선임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조교수

들어가는 말

1. 이론적 배경

- 1.1.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리교사
- 1.2. 교리교육을 위해 일하는 교리교사
- 1.3. 신앙여정의 동반자이며 교육자로서 교리교사

2. 연구 방법

- 2.1. 연구 절차와 연구 참여자 선정
- 2.2. 자료 분석 및 신뢰도

3. 연구 결과

- 3.1. 평신도로서 교리교사
- 3.2. 교리교사의 존재 이유인 학생
- 3.3. 연대하는 교리교사
- 3.4. 교리교사 신원과 역할의 도전들

논의 및 결론

들어가는 말

교황 프란치스코는 2021년 5월 10일 반포한 자의 교서 『오래된 직무』 (*Antiquum Ministerium*)를 통해 평신도 교리교사 직무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교황은 자의 교서를 통하여 복음화의 활동으로 교리교육의 중요성과 복음 전파자로서 교리교사의 역할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¹⁾ 여기서 교리교사는 “신앙의 증인, 교사며 신비가, 동반자이며 교육자로서 교회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다.²⁾ 교리교사는 “주님의 선교 사명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본질적인 행위”인 교리교육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에 파스카 선포를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다.³⁾ 즉, 교리교사는 교리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교리 지식만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일학교 교리교사가 자신의 신원과 자질을 인지하고 양성 받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특히 청소년 사목을 “교회가 청소년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이 청소년과 세상 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교육적으로 동반하는 사도직 활동”⁴⁾으로 바라볼 때, 교리교사는 교리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신앙 여정에 동반하면서 청소년 사목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에서, 청소년이 세속의 가치보다 하느님의 참된 진리에 가치를 두며 삶의 방향이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신원에 대한 교리교사의 의식과 교리교사로서의 실천적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천주교회는 오늘날 주일학교 중심의 청소년 사목이 직면한 도전들 중 극복해야 할 과제로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신원과 자질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15년 동안 주일학교를 주제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조영관은 “주일학교 중심의 청소년 신앙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연구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짧은 경력 및 신앙적인 자질 부족을 주일학교가 처한 위기와 한계 중 하나로 제

1) 프란치스코, 자의교서 『오래된 직무』 (*Antiquum Ministerium*, 2021) 1항, 『가톨릭교회의가르침』 64.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2) 『오래된 직무』 6항.

3) Pontificio Consiglio per la promozione della nuova evangelizzazione, *Direttorio per La Catechesi* n.55, (Vatican: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20).

4)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청소년 사목 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24항,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1).

시하였다.⁵⁾ 조발그니는 “주일학교 교리교육의 교회론적 성찰과 교육적 패러다임”이라는 연구에서 교리교사의 열정과 헌신부족, 사명감 결여, 영성의 결핍, 교사의 교리지식 부족등과 같은 교리교사의 자질을 주일학교 교리교육의 침체 요인들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⁶⁾ 노광수는 “주일학교 신앙교육의 현실과 방향 - 대구대교구 교리교사 중심”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주일학교 참석률 저조의 원인으로 교리교사의 신앙에 대한 확실성 부족, 교리지식 결여, 교리교사 자질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교리교사 양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⁷⁾ 김영권은 “현대 가톨릭 청소년 사목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서 현행 주일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주일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과 청소년 사목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청소년 사목 전문가로서 교리교사는 그에 어울리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교리교사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⁸⁾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은 주일학교 중심의 청소년 사목에서 극복해야 할 도전중 하나로 교리교사의 신원과 자질을 제시한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15년 동안의 연구에서만 지적된 것이 아니다. 이미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각 교구에 교육국이 신설되면서 주일학교가 자리 잡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교리교사의 신원과 자질은 주일학교 활성화에 대한 도전으로 제시되어 왔다.⁹⁾ 이처럼 반세기 가까이 제기되어 온 교리교육의 신원 의식과 자질 함양에 대한 지적은 교리교사가 청소년의 복음화와 신앙성숙에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안타깝게도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신원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청소년의 복음화와 신앙성숙을 위하여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여전히 남아 있을 뿐이다.

분명한 것은 선행연구들뿐 아니라 보편교회와 여러 지역교회의 교리교육과 관련된 문헌에서도 교리교사가 지녀야 하는 본질적인 차원의 신원과 자질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이

5) 조영관, 「주일학교 중심의 청소년 신앙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사목연구』 36(2016), 230-266.

6) 조발그니, 「주일학교 교리교육의 교회론적 성찰과 교육적 패러다임」, 『신학전망』 181(2013), 40-72.

7) 노광수, 「주일학교 신앙교육의 현실과 방향-대구대교구 교리교사 중심」, 『가톨릭사상』 44(2012), 47-76.

8) 김영권, 「현대 가톨릭 청소년 사목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신학전망』 159(2007), 113-114.

9) 1971년 12월 발행된 월간지 「경향잡지」에는 “주일학교 실태와 그 문제점”이라는 글에서 주일학교에 필요한 교리교사의 자질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1)투철한 신앙심 2)교육자로서 자질 3)교리지식의 소유자. 1997년 8월 발행된 「사목」에서 김준수는 “주일학교 교육의 당면 문제 및 활성화 대책”에서 교리교사는 주일학교의 요체요 핵심으로 보고, 교사의 자질에 따라 주일학교 성공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김진희, 유재국, 장필, 안드레아, 「좌담회」 주일학교 실태와 그 문제점, 『경향잡지』(1971년 12월), 24-25.; 김준수, 「주일학교 교육의 당면 문제 및 활성화 대책」, 『사목』 223(1997), 42-43.

를 기준으로 각 교구에서는 교리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리교사의 신원 의식과 자질이 주일학교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계속하여 제시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가 제시하는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현장의 교리교사들이 자신들의 신원과 자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교리교사의 신원과 자질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장 교리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복음화와 신앙성숙을 위하여 필요한 교리교사의 신원과 자질이 무엇이며, 현장의 교리교사들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연구는 다양한 연구 대상자들로부터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현장을 폭넓게 이해하고 특정 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이해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헌연구방법론을 주로 활용하는 전통 신학분야와 달리, 사회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연구하는 실천신학 분야는, 현대인의 신앙을 재해석하고 신학을 신앙으로 사람들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준다.¹⁰⁾ 이런 면에서, 사례연구 방법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리교사들의 경험을 통해 교리교사의 신원과 필요한 자질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첫째,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리교사는 자신의 신원과 자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둘째, 교리교사의 신원 의식과 자질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 셋째, 교리교사의 신원 의식과 자질을 형성하는 데 도전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1. 이론적 배경

1.1.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리교사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신원에 대해 우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

10) Mario Midali, *Teologia pratica: 1. Cammino storico di una riflessione fondante e scientifica*, (Roma: LAS, 2005), 400.

서 교리교사가 지니는 본성이다.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성품의 구성원과 교회가 인정한 수도 신분의 구성원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¹¹⁾을 말한다. 『교회헌장』 31항은 평신도 그리스도인이 지니는 본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에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¹²⁾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역할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의 선교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¹³⁾ 이들에게는 교회 안의 역할이나 신앙교육의 수준에 상관없이 복음화 활동에 참여해야 할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이다.¹⁴⁾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세속적 본성”(Indoles Secularis)을 지닌다. 평신도의 본성은 삶의 중심에서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¹⁵⁾하도록 이끌어 준다. 그래서 평신도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증거자가 되어 삶으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¹⁶⁾ 그러므로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복음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신도는 “살아 있는 지체로서 교회의 발전과 끊임없는 성화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기울이도록 부름”¹⁷⁾받고 있다. 그래서 평신도는 자신들이 사는 세상 어디에서나 그 누구도 제외되는 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¹⁸⁾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생활 신분이나 처지에서든,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성덕에 이르도록 저마다 자기 길에서 주님께 부르심”¹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평

1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 (Lumen Gentium, 1963) 31항.

12) Ibid., 31항.

13)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Evangelli Gaudium, 2013) 119항.

14) Ibid., 120항.

15) 『교회 헌장』 31항.

16) Giorgio, C., *Il Laico nella Chiesa e nel mondo*, (Bologna: EDB, 1999), 110.

17) 『교회 헌장』 33항.

18) Ibid., 33항.

19) Ibid., 11항.

신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성소와 역동성의 토대가 되어, 삶으로 세상에 증거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²⁰⁾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에 적극적으로 복음화 활동을 하라는 요구”²¹⁾를 받으면서 “복음화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부름 받고”있으며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²²⁾ 이러한 면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그들의 존재를 통해 복음화를 위한 귀중한 봉사”²³⁾에 참여한다.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Kerygma)하고 삶 안에서 증거(Martyria)하고 전례(Liturgia)를 거행하며 하나님의 친교(Koinonia)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을 향한 봉사(Diakonia)를 실천하며 교회의 선교 사명에 참여한다. 이처럼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면서 삶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 나아가, 평신도로서 교리교사는 교회가 자신의 복음화 사명을 실행하는 다양한 직무와 봉사 안에서 교리교육의 직무를 수행하며 복음화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부여 받은 이들²⁴⁾이라 할 수 있다.

1.2. 교리교육을 위해 일하는 교리교사

교리교사는 교리교육의 직무에 참여하면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봉사하도록 불렸다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부르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²⁵⁾ 그래서 교리교육은 교리교사의 가장 주된 임무이며, 교리교사의 고유성이 될 수 있다.²⁶⁾ 무엇보다 교리교육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²⁷⁾ 교리교사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교리교육 활동을 통하여 교리교사의 삶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 한다.²⁸⁾ 즉, 교리교사는 교리교육을 통해 주일학교 학생들을 복음화 하는 것이다. 교리교사의 이러한 활동은 복음화된 학생들이 세상으로 파견되어 또 다른 이들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때

20) 요한 바오로 2세, 『평신도 그리스도인』 (Chrisifideles Laici, 1988), 8항; 안젤로 스콜라, 「평신도 정체성-친교의 교회론에 비추어 본 평신도 신학」, 윤정현 옮김, 『신앙과 삶』 33(2016) 126.

21) 『복음의 기쁨』 120항.

22) Ibid., 121항.

23) 『교리교육 지침』 (2020) 121항.

24) 교황청 성직자성, 『교리교육 총지침』 230항 참조.

25) 『교리교육 지침』 110항 참조.

26) 피에트로 다무, 『교리교사의 영성』, 백광현, 정은자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18), 75 참조.

27) 『교리교육 총지침』 60항 참조.

28) 『교회헌장』 35항 참조.

문에 교리교사가 하느님 말씀을 ‘선포’(Proclamation)할 때는 단순히 무언가를 공식적으로 알린다거나 중요한 내용을 전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는다.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확신이 가득차서 이야기 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⁹⁾ 그러므로 교리교사는 스스로 구원 받고, 교리교육을 통하여 주일학교 학생들을 구원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교회와 신앙의 삶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³⁰⁾ 이러한 이유로 교리교육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말씀 봉사의 직무가 된다. 즉, 교리교사는 교리교육을 통하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³¹⁾ 그러므로 교리교육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자기의 가르침이나 스승의 가르침을 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해야 할 의미”³²⁾를 부여한다. 다시 말해 교리교사는 교리교육을 통하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깊은 우정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는 교리교사가 교리교육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여 그 방식이 교리 지식을 가르치는 임무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리교사가 복음의 삶을 먼저 살고 그들의 삶으로 증거 할 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교리교육은 교리교사 자신의 신앙고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³³⁾

1.3. 신앙여정의 동반자이며 교육자로서 교리교사

교리교사는 교리교육을 통하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신앙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교리교사는 학생들에게 교리교육을 통하여 예수

29) J. Bergolio, “Riflessioni di un pastore: Misericordia, Missione, Testimonianza, vita”, *L'Osservatorio Romani* (2013,12,4), 5 참조.

30) R. Tonelli, *La narrazione come proposta per una nuova evangelizzazione*, (Roma: LAS, 2012), 56.

31) 에밀리오 알베리치, 『오늘의 교리교육』, 최주영, 백광현, 신현문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18), 138.

32) 요한 바오로 2세, 『현대의 교리교육』 (*Catechesi Trandendae*, 1979), 6항

33)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리교육위원회, 『한국 천주교회 교리교육 총지침』 32항(나. 교리교사의 신앙고백),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5).

그리스도의 구원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두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양성되어야 한다.³⁴⁾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정향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교리교육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삶의 가치관이 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 같은 교리교사의 역할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알아야 할 수많은 교리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해하며 그들의 신앙여정을 동반하는 교육자가 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리교사가 만나는 청소년은 단순히 교리교사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화를 향해 공동책임을 함께 나누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교리교사는 학생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요구받는다. 다시 말해, 교리교사는 학생들보다 경험이 많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며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함께 현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³⁵⁾ 이러한 이유로 교리교사는 교리시간에 학생들을 만나는 동안 학생들과 삶을 나누고, 자신들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목소리를 들려줄 책임을 부여받는다.³⁶⁾ 즉, 교리교육의 목적은 신앙의 가르침을 통해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동반해주는 것이다.³⁷⁾ 이를 위하여 교리교사는 학생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양성할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다. 이때 교리교사가 기획하는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에서 교회의 많은 가르침을 전수해야 한다는 조급함 대신에, 학생들이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을 계속하여 살도록 동반하는 것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³⁸⁾ 이 같은 관점은 교리교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과 영성을 지니도록 요구한다. 교리교사들이 학생들의 모범으로서 신앙의 증거자이자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초대됨을 의미한다. 결국,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교리교사가 될 때 학생들이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으로 성숙하도록 동반하며 그들의 신앙여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³⁹⁾

34) 『교리교육 지침』 75항 참조.

35) 피에트로 다무, 『교리교사의 영성』, 78 참조.

36) 『현대의 교리교육』 (Catechesi Trandendae, 1979) 6항 참조.

37) 『현대의 교리교육』 1항 참조.

38)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12항 참조.

39) 에밀리오 알베리치, 『오늘의 교리교육』, 458 참조.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교회 문헌을 바탕으로, 주일학교 교리교사가 인지하고 있는 신원과 역할을 살펴보고, 교리교사들의 신원과 역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선택한 사례연구 방법은 “어떻게”와 “왜”라는 질문을 통해 깊이 있고 총체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기에,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신원 및 역할과 관련된 연구 질문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⁴⁰⁾

2.1. 연구 절차와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자는 2022년 5월 관련 기관에 2회 이상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관으로부터 자료 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2022년 7월 공용기관생명 윤리위원회로부터 IRB 승인(승인번호: P01-202208-01-012)을 받아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사례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개월 동안 총 4차례의 방문(2022년 9월 17일, 2022년 9월 24, 2022년 10월 1일, 2022년 10월 8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심층 면접과 문서를 통하여 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자료 수집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우선, 심층 면접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현재 A교구에 소속된 17개 본당 주일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리교사 18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교리교사로 활동한 연차에 따라 선정하였다: 1년차-5년차 4명, 6년차-10년차 4명, 11년차-15년차 4명, 16년차-20년차 3명, 21년 이상 3명. 면담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 등 연구 관련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 연구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면담은 A교구 청소년국 사무실에서 진행하였으며, 면담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질문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난 후, 미리 작성된 개방형 질문지를 중심으로 반 구조화된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참여자의 성격에 맞게 사전에 작성된 질문 유형은 다음과 같다.

40) R. K. Yin, 『사례연구방법』, 신경식, 송민채, 신현섭 외 2명 옮김, (서울: 한경사, 2021⁶⁾), 63.

<표1> 면담 참여자의 면담 질문의 대표적인 예

면담 참여자	면담 질문의 대표적인 예시
주일 학교 교리 교사	교리교사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교리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요? 교리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교리교사 양성교육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교리교사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면담은 개인당 40분-50분 소요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정확성과 완전성을 위해 면담 시작 전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으며, 면담 종료 후 빠른 시간 내에 전사를 완료하였다. 면담 참여자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2> 면담 참여자의 인적사항

그룹 단위		연차	본당	연령
그룹 A	1	2년차	A본당	21세
	2	3년차	B본당	22세
	3	4년차	C본당	36세
	4	4년차	D본당	50세
그룹 B	1	7년차	E본당	29세
	2	6년차	F본당	29세
	3	7년차	A본당	25세
	4	10년차	G본당	31세
그룹 C	1	11년차	H본당	32세
	2	13년차	A본당	32세
	3	15년차	I본당	34세
	4	15년차	J본당	34세
그룹 D	1	18년차	K본당	37세
	2	19년차	L본당	53세
	3	20년차	M본당	61세
그룹E	1	25년차	N본당	56세
	2	34년차	O본당	56세
	3	41년차	P본당	62세

또한, 문서는 기간 방문 동안에 관계자로부터 도움을 얻어, 교리교사의 기본 인적 사항, 교리교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내용, A교구 교리교사 현황 등과 같은 자료를 이메일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2.2. 자료 분석 및 신뢰도

본 연구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Glaser(1965)의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활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의 과정은 개방코딩, 개념화, 1차 범주화, 2차 범주화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텍스트로 된 전사한 면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교리교사의 신원, 정체성, 그리고 자질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단어, 문장, 절을 표시하며 추출하는 개방 코딩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둘째, 코딩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유사한 의미를 지닌 자료들을 유목화 하였으며, 유목화 된 자료에 대하여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념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셋째, 개념화된 자료들은 주제별 관계성을 고려하여 반복적으로 비교하며 유사한 자료들을 주제별로 묶어 하위 범주화하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용어로 추상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상화된 주제들을 원 자료와 비교하고 반복적인 확인 과정을 거쳐 그 속성에 따라 상위 범주화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서 개방 코딩을 통해 얻은 의미는 총 631개이며, 개방 코딩된 것을 유목화하여 개념화한 주제는 총 89개였다. 개념화된 의미를 하위 범주화한 주제는 14개였으며, 하위 범주의 주제에 대한 연역화 과정을 거쳐 총 4개의 주제로 상위 범주화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수집 대상자는 교리교사의 연차에 따라 총 5개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교리교사의 정체성과 신원 및 자질에 관한 인식 연구로서 연차에 따른 자료 수집은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유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는 자료 분석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비교를 3회 이상 지속하여 실행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비교는 광범위한 자료로 인해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선별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¹⁾ 셋째, 질적 연구 전문가인 공동연구자로부터 분석 방식과 분석 결과를

41) Gharam R. G,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 김종훈, 조현희, 염수정 옮김, (서울: 박영story, 2022), 197-198.

교사 점검함으로써, 연구 자료의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⁴²⁾

3.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연구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상위 범주화된 4가지 요소, 즉 “평신도로서 교리교사”, “교리교사의 존재 이유인 학생”, “연대하는 교리교사” 그리고 “교리교사의 신원과 역할의 도전들”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교회문헌을 중심으로 제시한 교리교사의 신원과 역할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일학교 교리교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실천되는지 현실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표3> 교리교사의 신원과 역할에 대한 주일 학교 교리교사의 인식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개념의 대표적인 예시
평신도로서 교리교사	증거 하는 교리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앙인으로서 솔선수범 • 하느님 체험에 대한 교리교사의 경험
	교리를 전달하는 교리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리와 교리교수법의 습득 • 교리교안 준비
	성숙하는 교리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리교사로서 정체성과 사명감 갖춤 • 교리교사의 신앙성숙을 위한 노력
	선교 사명에 참여하는 교리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 학생에게 하느님 말씀을 선포함
교리교사의 존재 이유인 학생	예정 있는 교리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눔 • 학생이 성당에 나오도록 이끌어 줌
	신앙 여정을 동반하는 교리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을 위하여 헌신·희생 함 • 학생의 성장 과정을 함께 함
	친구 같은 교리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파악 • 학생의 이야기를 경청·공감 • 학생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노력
	신앙인의 삶의 양식을 알려주는 교리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앙을 전달하고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함 •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강조 • 교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 이끔

42) Ibid, 202 참조.

연대하는 교리교사	상호 격려하는 교리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당공동체의 인정 ● 교리교사 간의 공감하는 자리에서 얻는 힘
	일치하는 교리교사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리교사를 함께하면서 얻는 기쁨 ● 서로 협력하며 운영하는 주일학교
	상호 성장하는 교리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배에게 힘이 되어주는 선배 교리교사 ● 후배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선배 교리교사
교리교사 신원과 역할의 도전들	관계적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리교사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 담당사제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사회 환경적 여건에 따른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려움 ● 생업과 봉사의 우선순위
	직무 수행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에 대한 어려움 ● 교리교사 활동에서 오는 어려움 ●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청소년 사목

3.1. 평신도로서 교리교사

평신도로 살아가는 교리교사는 무엇보다 학생에게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삶을 살도록 삶으로 증거 하며 다가갈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교리하다 보면 저도 이제 뭔가 이런 부분들은 항상 그 교리를 준비한다면 어쨌든 시작, 도입, 전개, 마무리가 있잖아요 그 마무리를 하다 보면 이게 아이들한테 내가 과연 가르치고 있지 만 지금 나는 느끼고 알고 있을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돌 아보고 뭔가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잠을 청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무리를 쓸 때...“나는 그래 왔는가?” 약간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질 수 있더라고요.(C3)

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인 신앙전달 방법은 교리교사가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직접 보여 주고 증거 하는 것이다. 때문에 교리교사는 우선적으로 하느님 체험이 필요하다. 교리교사가 “하느님 체험을 하고 나서 (하느님)이야기를 아이들한테 같이 해야지 좀 더 진정성 있게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DI)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은 교리교사의 신원을 드러내는 데 신앙적 체험이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임을 알려준다.

자신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하느님이 계시야 내가 만난 예수님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그 하느님을 만났던 그런 체험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E3)

교리교사는 교리교육을 통하여 학생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교리교사의 신앙은 곧 교리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진다. 교리교사는 “가톨릭 교리를 습득”(A1) 하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D2)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리교사는 교리교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교리교사의 고유한 임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리교사의 임무는 연차수가 더해지면서 자신의 신원과 자질을 발전시키고 성숙하는 교리교사로 되어가는 데 기회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교리교사 3년차인 A2는 교리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방향하고 있는 시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리교사가 이제 하느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알리는 게 있는 데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애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존재가 있다 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2)

여기서 교리교사 3년차인 A2 교리교사는 학생에게 하느님 말씀을 알리는 것이 교리교사의 역할이며 그들이 힘든 순간 기대어야 할 존재로서 하느님을 알려주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25년차 교리교사인 E1은 교리교사가 교리교육을 통하여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즐거움만 가지고 주일학교가 운영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교리교사를 부르셨을 때는 이 교리 교사들의 역할은 아이들을 하느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느님과 늘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늘 강조를 하고, 저희 교사들하고도 즐기 그 즐거움 안에는 늘 하느님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있어야지, 신앙을 떠나고 주일학교 교리교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E1)

이처럼 연차수가 올라갈수록 교리교사는 자신의 신원과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교사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여기에 와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맞는 모

습”(C4)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교사의 태도는 교리교사로서 합당한 사명감을 지니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A4) 학생을 만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면에서 교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양성교육은 “교리교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는 데 시발점”(C1)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양성교육은 단순히 교리교사에게 학생에게 전달해야 할 교리적 지식뿐만 아니라 교리교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교리교사로서 사명감을 상승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끔씩 이러한 교구 교육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서 저는 교리 교사로서의 그런 단어가 잘 생 각이 안 나는데 뭔가 리프레시 개념으로도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C2)

뿐만 아니라, 교리교사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 사명에 참여해야 할 책임을 의식한다.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의 선교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데 이들은 교리교사로서 그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리교사에게 이 활동은 “하느님의 계획”(E2)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부르심”(A4)에 대한 응답이다. 즉, 교리교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책임인 “하느님 말씀을 학생들에게 이야기(선포)”(A2)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에 참여한다. 이는 교리교사가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와 신앙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학생이 신앙 습관을 기르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삶 안에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신앙의 습관을 들이고 아이들이 그 습관을 [...]. 저희도 그러잖아요. 무의식적으로는 습관을 들이면 계속 이제 그걸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E1)

더 들어가면 네가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났는가 하느님을 알아서 흠송하고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거 하나가 목표다. 너의 가슴에 새겨라. 어디를 가든 교리 끝날 때까지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E3)

3.2. 교리교사의 존재 이유인 학생

주일학교 학생의 존재는 교사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 주일학교에 “교리 교사가 없으면 학생회 구성이 어려운데”(A1), 교리교사 또한 “학생이 없으면 교리교사도 없다”(A1)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리교사의 인식은 C4 교리교사의 응답에서도 찾

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들이 없으면 안 오더라고요 다른 몇몇 성당들은 선생님들 인원이 줄고 교사가 없어지고 이러면 아이들이 너무 당연하게 없어지고... 성당에 오는 것도 와도 날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러면서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리교사는 성당에서 만나야 되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거기서 같이 맞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D4)

이는 교리교사의 정체성이 학생으로부터 비롯됨을 의미한다. 즉 주일학교 교리교사는 학생과 함께 함으로써 교리교사로서 큰 보람을 얻고, 교리교사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깨닫게 된다.

졸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떠나보내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또 내가 이 다음 학년 친구들을 조금 더 케어하고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즐거워서 보람된다는 표현이 맞는 거 같아요(B3)

이러한 보람을 얻는 것은 교리교사가 학생에게 애정을 가지고 다가간 태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처럼 주일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시기의 교리교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은 교리교사가 먼저 학생들이 성당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선 “아이들이 성당에 와야지 뭔가 시작”(E2)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리교사는 학생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교리를 전달하면서 학생들이 조금씩 “성당에 나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A1) 때문에 교리교사에게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애정 있는 관심을 보이면서 성당에 나오지 않는 학생에게 연락을 먼저 취하거나, 학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면서 항상 학생을 환대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올해 2년차인 A1 교리교사는 자신이 성당에 갔을 때 항상 반갑게 맞아주던 교리교사 덕분에 교리교사를 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더구나 학생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교리교사들이 보여주는 관심은 학생에게 큰 감동을 전하며, 학생들이 성당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되도록 격려하는 동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신부님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나오 그런데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하고 성지순례 갔는데, 속이 불편해서 토했는데 제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토한 걸 다 치우고, 괜찮았니? 하고 물었는데요 자기 너무 창피하고 막 그래서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등 두들기면서 ‘괜찮았어? 괜찮아~’ 이렇게 해 줬던 게 저라고 그

러면서 저한테 너무 고마웠네요.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때 선생님이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 표현할 때 보면 저는 기억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또 저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이 그런 추억들이 그리고 좋게 또 그 아이한테 심어져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E2)

주일학교 학생에 대한 교리교사의 관심과 애정이 중요한 이유는 교리교사가 주일학교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신앙 여정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교리교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들의 신앙 여정에 현존한다. 그러나 현존은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교리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교리교사도 학생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주면서 현존한다. 이러한 모습은 “시간을 내시고 또 프로그램 같은 거 준 비해주는 모습”(B2)을 통해 깊은 인상을 남기며 학생들을 감동시키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미래에 자신의 교리교사처럼 교리교사가 되거나, 다른 학생의 신앙 여정을 동반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다. 때문에 교리교사는 학생과 함께 신앙 여정을 걸으면서 “항상 학생들이 왔을 때 만나야 하는 시간에 항상 있어주는 사람”(C4)이 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교리교사의 중요한 자질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교리교사는 학생의 성장 과정에 함께하면서 학생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B2)의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리교사의 현존은 학생들에게 친구 같은 교리교사가 되게 하는 기회가 된다. 이 기회는 교리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과 친해지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든다. 친밀함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교리교사가 학생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학생이 속한 환경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도록 안내한다. 이처럼 학생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지닌 교리교사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과 공감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선생님이 느낄 사명감이라든지 이 선생님이 느낄 책임감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게 없다면 공감도 못해 줄 거고 들어주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A1)

한편, 교리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학생에게 신앙인의 삶의 양식을 알려주는 신앙 교육으로 연결된다. 학생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교리교사의 언어와 태도는 학생이 ‘하

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느님과 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냥 오면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인사해주고 한 번씩 아는 척 해주고 그러면서 한 가지라도... 선생님이라는 그 단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면 그래도 하느님은 너희한테 이런 거는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 너희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어. 이런 뭔가를 한 가지라도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거는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 그냥 뭔가 같이 교리를 해도 내가 이걸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결국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하느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부르셨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너희 옆에도 계시. 그거를 한 번씩 꼭 얘기해주는 거 같아요 (C4)

마찬가지로, 교리교사는 학생들의 삶이 타인을 향할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강조하는 역할도 함께 해 나간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웃 사랑이라고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해주거든요 너희가 진짜 교리적으로 지식이 있고 그런 거 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면 그게 믿음인거고 그 안에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영상도 많이 보여주고...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느끼는 감정을 같이 얘기해주거든요 나는 이렇게 느꼈고 너희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얘기해 보고 (B1)

교리교사의 이러한 가르침은 ‘학생도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복음화’를 향한 책임감을 느끼는 존재임을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교리교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교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주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액티비티”(B3)를 통해 학생의 흥미를 높여 주고, 학생회를 조직하여 “스스로 자치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도록”(B4) 안내하여 학생이 교회 활동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며, 신앙을 잃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저한테 교리교사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신앙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나 성당에 다녔을 때 너무 좋았는데’ 라는 그 감정을 가지고 나중에 냉담을 하더라도 그 힘들 때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다시 성당에 올 수 있는 그런 걸 좀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게 우선인 거 같아요(B4)

이와 같이 교리교사에게 학생은 그들의 삶의 변화나 신앙 성숙을 도와주는 존재인 동시에, 교리교사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교리교사의 신앙 성숙에도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즉, 주일학교 활동은 교리교사가 단지 학생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곳만이 아니라 교리교사도 “학생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느낄 때, 하느님을 느낄 때가 많기”(B1) 때문이다.

3.3. 연대하는 교리교사

교리교사 간의 연대는 주일학교 학생들과의 관계만큼 중요하다. 특히 본당 공동체 구성원과 교사 간에 서로 격려하며 행하는 활동은 성숙한 교리교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당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받은 인정이나 존중은 교리교사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신앙만으로) 다 채워지지 않을 것 같고... 사실 본당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본당에서 신부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을 채워주느냐 인 거 같아요 단순히 응원해주는 것이나 위로나 이런 것들이 진짜 진실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인정받고 약간 이런 심리(적으)로 보듬어지는 거 같고 그래서 뭔가 외부적인 응원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C3)

특히, 교구 차원에서 마련하는 피정 프로그램, 교리교사의 날, 지구 차원에서 마련하는 지역교리교사 모임 등은 교리교사의 신원과 역할을 고취 시키는 역할을 한다. 교리교사는 이러한 모임에서 다른 교리교사들을 만나면서 서로 공감하고, 동료애를 느끼며, 서로를 격려하고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신원을 다시 되새기는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나랑 비슷하게 교리교사 생활을 하지만 저랑은 같이 있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랑 같은 교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나눔을 하고 얘기를 하고 뭐 서로 상처도 보듬어 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힘을 주기도 하고 그 안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게 그냥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걸 하면서 좀 더 힘을 얻어서 교사를 좀 더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D1)

교리교사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힘을 얻은 교리교사는 교리교사 공동체와 일치하도록 안내한다. 결국, 교리교사 간의 일치와 화합은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 일치된 교사 공동체로부터 배움을 받은 학생들이 훗날 교리교사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교리 교사를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되게 성당을 열심히 나왔어요. 입시를 하면서도 열심히 나와서 선생님들 모습이 좋아 보여서 나도 해야 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B2)

성당 다니는 친구를 따라서 가게 됐는데 근데 이사를 왔어요. 지금 이 중3동 성당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냥 나가게 됐고 세례도 받고 견진도 받고 거기서 초중고등부 생활을 쭉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랑 친해졌고 그냥 나도 저기 선생님들처럼 교리교사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고3때 수능 보자마자 신부님 저 교리교사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D1)

그러므로, 교리교사 간의 일치와 연대는 학생의 신앙 여정의 동반에 대한 근원적인 힘으로서 상호 성장의 동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수퍼바이지”(D3)와 같은 선배교사의 역할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후배 교리교사들이 마주한 도전을 극복하며 성장하는 데 지속적인 도움이 된다. 때문에 선배 교리교사의 역할은 “함께 교사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E2) 교리교사들을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연대성을 강화하는 본질적인 힘이라 할 수 있다.

3.4. 교리교사의 신원과 역할의 도전들

교리교사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의식하며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학생들을 만나고 동료들과 연대하며 자신들의 신원과 정체성을 실현하고 교사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키워나간다. 그러나,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교리교사들의 도전들은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기에 그들의 신원과 정체성에 대한 위협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 중 주일학교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관계에서 오는 위기’는 연구 참여자 18명 전원이 공감하는 위협적 요소이다. 주일학교는 주임신부, 보좌신부, 본당수녀, 본당공동체 구성원, 학부모, 동료 교리교사,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관계의 중심에 놓여 있는 교리교사는 주일학교 운영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 이는 교리교사가 소통의 부재나 관계로 인한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반

영하며 그들의 사명 수행에 대한 도전적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연차가 쌓이고 나서 힘든 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본당 혹은 저희 ‘교사회’의 특성일 수 있지만 보고나 절차 그 다음에 누군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대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과 이해관계도 많고 그런 사이에서 뭔가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C3)

우선, 교리교사 간의 관계에서는 다양한 연차에서 비롯되는 세대 간의 소통의 어려움이 두드러진다. 이는 세대 간의 이해의 차이에서 시작되어 소통의 부재로 이어짐으로써 교리교사를 그만두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교리교사의 사명이나 교리교사 간의 연대성 강화에 위협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저는 괜찮아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상관이 없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상관이 없고 저는 괜찮은데, 이제 들어갔을 때 만약 기존의 다른 교사분들... 제가 되게 놀랐던 부분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전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불편해하는 거예요 저의 자체를.. 단지 그 나이 많다는 하나로 거의 처음에는 상처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A3)

제가 올해 37세 인데 다른 친구가 저보다 어려요, 제일 나이 어린 친구들이 23세예요 그래서 이런 교사 생활을 같이 함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내가 좀 꼰대 같이 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감으로서... (D1)

교리교사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본당 사제 혹은 청소년 사목을 담당하는 사제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며 교리교사로서의 사명 수행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이는 주일학교의 모든 결정은 담당 사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에 주일학교에 대한 담당사제의 관심도에 따라 주일학교의 분위기가 변화되어 맞게 되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본당 신부님은 길게 봐도 5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주임 신부님 같은 경우는 오시는 신부님에 따라서 주일 학교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어떤 신부님은 주일학교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하던 대로 하라고 하시는 신부님들도 계시고 어떤 신부님은 교리는 성경이 중요하니까 무조건 모든 교리는 성경으로 하라고 하면, 저희 커리큘럼이 짝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한 신부님은 진짜 10년 짜리 커리큘럼을 짜오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본인은 5년 계신데...(C4)

또한 교리교사가 겪는 어려움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학생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일학교와 학부모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학부모의 지지와 도움을 얻지 못할 경우에 생기는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자녀의 신앙에 대하여 소극적인 부모의 태도는 교리교사의 열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생활보다 학원 생활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엄마들이 예전에는 성당에 보내라고 하면 네 알겠어요 그냥 그러고 성당 안 갔다면 혼내고 밥도 안주고 집도 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엄마들은 안 그래요 초등학교 엄마들은 아이한테 물어볼게요 라고...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우리 아이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애기를 하세요 저는 엄마들에게 그러거든요 아이가 뭔가 느낄 수 있게끔 하려면 그 안에 머물게 해야지, 머물게 안하면서 아이에게 신앙심이 어떻게 생기느냐! 일단 보내서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애기는 하는 데 학원이 먼저죠(E2)

무엇보다, 교리교사가 겪는 외부적 위기는 사회 환경적 요인과 연결된다. 이는 교리교사들이 생업을 위한 활동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자발적인 차원에서 교리교사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분의 교리교사가 “사회생활을 같이 하다보니까 사회생활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교리교사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C1)을 겪고 있다. 또한 교리교사로서 연차수가 올라가면서 학생들과 겪는 소통의 어려움은 교리교사로서의 사명 실천에 회의감을 가져다주며 자신의 신원과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연차가 이렇게 막 많아지면 책임감 때문에 나중에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냥 내가 다 놓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었고 (C3)

이제 본당에서 같이(젊은 선생님들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내가 이제는 도태되고 내가 이제는 정말 다른 젊은 친구들한테 이 자리를 쫓겨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생각을 해요(D3)

이처럼 교리교사들에게 다가오는 교사간의 소통이나 사목책임자,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본당 공동체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은 교리교사의 신원의식과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도전적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회가 제시하는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교리교사의 신원과 자질을 현장에서 활동하는 A교구 소속 16개 본당 주일학교 교리교사를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리교사는 세례를 받은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여되는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교리교육을 통하여 학생에게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신앙을 살도록 자신의 삶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교리교사들이 자신의 신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교리교사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교회의 선교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리교사에게 학생의 존재는 교리교사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학생은 주일학교 교리교사가 존재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교리교사가 학생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신앙 여정을 동반하면서 친구로서의 다가가는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교리교사는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신앙인의 삶의 양식을 알려주며 그들이 세상의 복음화에 동참하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신원과 역할에 대한 본질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교리교사는 함께하는 동료 교사들과의 연대 안에서 자신의 신원과 정체성을 재인식하고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확신에 찬 자세로 다가갈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한편, 교리교사들은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을 실천하는 데 다양한 도전을 만나기도 하였다. 특히, 주일학교를 구성하는 복잡한 관계(담당 사제, 담당 수녀, 교리교사, 학생, 학부모, 본당 공동체) 가운데 놓인 교리교사들은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직무 수행에서 오는 다양한 어려움(학생에 대한 어려움, 교리교사로서 회의감, 번아웃)들은 교리교사의 소명을 살아가는 데 실질적인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같은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주일학교 교리교사라는 스스로의 신원과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주일학교 침체요인 중 하나로 교리교사의 신원 의식과 자질 부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며 출발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일학교 교리교사는 선행연구의 내용과는 달리 교리교사로서 신원과 자질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교리교사는 “세례와 견진성사의 은총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각자의 역할 안에서 참여⁴³⁾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리교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언어와 태도를 통해 학생에게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다.⁴⁴⁾ 즉, 교리교사들은 학생의 신앙여정을 동반하면서 청소년 사목의 궁극적인 목표인 청소년의 복음화를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학생을 사랑하고 그들의 신앙성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교리교사 자신이 교사이기 이전에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인식을 지니고 자신부터 하느님 체험이 있어야 학생에게 진심으로 살아 있는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리교사에게는 개인의 신앙 성숙과 교리교사의 영성을 살기 위한 피정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나아가, 교리교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 말씀을 학생에게 선포해야 할 중요한 책임을 느끼며 교리교육자로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교구 차원에서 마련되는 다양한 양성 교육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려고 노력하였다. 주목할 것은 교리교사는 학생에게 교리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신앙 여정에 현존하며 신앙의 삶을 함께 살며 그들이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우정을 맺을 수 있도록 동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하는 ‘케리그마(Kerygma)의 심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교리교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⁴⁵⁾ 이처럼 교리교사의 신원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이 삶 안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이들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주일학교 교리교사에 대한 교회 공동체 인식의 변화는 절실하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자의교서 『오래된 직무』를 통하여 평신도의 교리교사 직무는 “교회에 주는 고정적 형태의 봉사”로서 “평신도의 임무로 수행”됨을 강조한다.⁴⁶⁾ 이는 교리교사의 역할이 학생들의 신앙 성숙과 신앙 여정을 동반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역할이 교회가 부여한 한 직무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공동체는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43) 『교리교육 지침』 110항.

44) Ibid., 참조.

45)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14항 참조.

46) 『오래된 직무』 8항.

교유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신원과 역할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연차수가 높을수록 교리교사의 신원과 역할은 그들의 삶 깊은 곳에서 내면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소속된 A교구에서 제공한 기초자료 중 「2022년 교리교사 근속, 교육이수 통계현황」에 따르면, A교구의 2022년 기준 평균 교리교사 경력은 약 10년이다. 전체 교리교사의 18%에 해당하는 숫자가 교리교사 활동을 10년 이상 지속하며, 심지어는 42년 동안 교리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이도 찾아볼 수 있다. 교리교사로서 이 같은 지속적인 봉사가 가능한 이유는 교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교리교사 관리와 수준 높은 양성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생의 신앙 성숙과 함께 교리교사의 신앙 성숙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일학교 활동은 학생과 교리교사의 상호작용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 본질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교리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리교사와 학생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복음화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니고 교회의 선교 사명을 함께 실천해 나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연차수가 높은 교리교사일수록 ‘하느님의 부르심,’ ‘하느님의 은총,’ ‘신앙,’ ‘말씀 선포,’ ‘신앙의 삶,’ ‘하느님 체험,’ ‘하느님과의 관계’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과 관련된 용어들을 자주 언급하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1년에서 5년에 해당하는 교리교사들은 양성교육에서 배우거나 선배 교리교사의 모습을 따라 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6년차 이상 교리교사들은 교리교사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교리교사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연구 참여자 중 삶 자체가 교리교사로 내면화된 삶을 살고 있는 가장 경험이 많은 42년차 교리교사에게서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내면화된 삶은 학생이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도록 안내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교리교사의 활동이 비록 개인의 삶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학생을 통하여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앙이 내면화된 모습은 동료 교리교사 간의 연대를 위하여 노력하며 청소년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들과 나눈 다양한 경험이나 교리교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양성 프로그램은 연차

수가 지나갈수록 교리교사들의 삶 안에서 내면화된 결실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리교사들의 신원과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양성프로그램을 보다 정교하게 기획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교리교사의 정체성과 신원을 강화하는 간접적 요인은 교리교사 간의 연대성이다. 이는 교리교사들끼리 함께 모이는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교리교사의 연대를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리교사는 교리교사들끼리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교리교사의 신원과 역할을 다시 생각할 계기가 되었음을 응답하였다. 나이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교리교사들끼리 나누는 자리에서 학생들과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을 이야기 하며 공감하고, 힘겨운 일에 대해 서로 응원하고 위로하는 자리는 교리교사로서 살아갈 힘을 회복하고 자신의 신원을 더욱 확고히 하는 자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교리교사들이 연대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육화를 체험하고 교리교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감을 재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동료들과 나눔의 자리를 통해 교리교사들은 각 개인이 지닌 어려움이 궁극적으로 함께 극복해야 할 도전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성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신원과 정체성으로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리교사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교리교사 피정이나 교리교사의 날, 그리고 지역교리교사 모임은 그들의 신원과 자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기획될 필요성을 알려준다.

넷째, 교리교사로서의 신원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도전적 요소는 다양한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드러났다. 그 가운데 교리교사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담당 사제의 역할은 교리교사의 사명과 정체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가 담당 사제의 역량에 따라 주일학교의 분위기가 좌우되고, 교리교사의 자질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데 깊은 공감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당 사제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마다 소임지가 변경된다. 아쉽게도 본당의 사목 방향은 본당 신부의 사목 방침에 따라 변화된다. 즉, 주일학교에 관심이 많은 사제는 주일학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주일학교에 관심이 없으면 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당 신부의 사목 방침은 주일학교에 대한 해체 혹은 발전적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교리교사 활동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제의 영향아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면은 본당 주일학교에서 본당 사제와 주일학교 담당 사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일학교 담당 사제나 책임자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쇄신의 필요성을 더욱 확고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 교리교사의 신원과 자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강화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질적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리교사의 신원과 자질에 대한 교리교사들의 입장을 현실적으로 경청할 수 있었다는 점과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 드물게 이루어진 주일학교 교리교사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교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리교사를 참여자로 선정하여 얻은 연구 결과이기에 한국 천주교회에서 활동하는 교리교사들의 보편적인 생각으로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한계는 추후 연구 설계에서 한국천주교회 전체 교리교사를 대상으로 교리교사에 대한 신원과 정체성에 관한 인식연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1. 교회 문헌

- 요한 바오로 2세, 권고 『현대의 교리교육』 (Catechesi Tradendae, 197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².
- _____,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Christifideles Laici, 198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⁴.
- 프란치스코, 권고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 201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².
- _____,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Christus Vivit, 201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 _____, 자의교서 『오래된 직무』 (Antiquum Ministerium, 2021), 『가톨릭교회의가르침』 64, 2021, 13-24.
- 성직자성, 『교리교육 총지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².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 (Lumen Gentium, 196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Pontificio Consiglio per la Promozione della Nuova Evangelizzazione, Direttorio per la Catechesi,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20.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한국 천주교회 교리교육 총지침』,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5.
- _____,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1.

2. 정기 간행물

- 김영권, “현대 가톨릭 청소년 사목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신학전망』 159, 광주가톨릭대학교, 2007, 96-127.
- 김진희, 유재국, 장필, 하안드레아, “[좌담회] 주일학교 실태와 그 문제점”, 『경향잡지』 (1971년 12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8-28.
- 김준수, “주일학교 교육의 당면 문제 및 활성화 대책” 『사목』 22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31-50.
- 노광수, “주일학교 신앙교육의 현실과 방향 - 대구대교구 교리교사 중심”, 『가톨릭사상』 44, 대구가톨릭대학교, 2012, 47-76.

- 조발그니, “주일학교 교리교육의 교회론적 성찰과 교육적 패러다임”, 『신학전망』 181, 광
주가톨릭대학교, 2013, 40-72.
- 조영관, “주일학교 중심의 청소년 신앙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사목연구』
36, 가톨릭대학교 시목연구소, 2016, 230-266.
- Jorge, M.B., “Riflessioni di un pastore: Misericordia, Missione, Testimonianza, vita”,
L’oservatorio Romani(2013.12.4.).7.

3. 단행본

- Gharam, R.G.,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 김종훈, 조현희, 염수정 역, 박영story, 2022.
- Giorgio, C., Il Laico nella Chiesa e nel mondo, Bologna:EDB, 1999.
- Mario, M., Teologia Pastorale: 1. Cammino storico di una riflessione fondante e
scientifica, Roma: LAS, 2005.
- Riccardo, T., La narrazione come proposta per una nuova evangelizzazione, Roma:
LAS, 2012.
- Yin, R. K., 『사례연구방법』, 신경식, 송민채, 신현섭 외2명 역, 한경사, 2021⁶.
- 알베리치, 에밀리오, 『오늘의 교리교육』, 최주영, 백광현, 신현문 옮김, 돈보스코미디어,
2018.
- 다무, 피에트로, 『교리교사의 영성』, 백광현, 정은자 역, 돈보스코미디어, 2018³.

청소년과 함께 걷는 이들의 오래된 직무(*Antiquum Ministerium*) : 주일학교 교리교사 신원과 역할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이진옥 · 윤만근

보편교회와 지역교회의 문헌에서는 교리교사에 대한 신원과 교리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교회는 교리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신원과 자질이 주일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교리교사의 신원과 자질은 무엇이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리교사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A교구의 교리교사 18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 하였다.

연구 결과, ‘평신도로서 교리교사,’ ‘교리교사의 존재 이유인 학생,’ ‘연대하는 교리교사,’ ‘교리교사의 신원과 역할의 도전들’이라는 4가지 범주로 드러나는 교리교사의 신원과 역할과 관련한 인식 요인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교리교사는 자신의 신원과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생은 교리교사의 신원과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대상이었다. 또한, 교리교사는 동료 교리교사의 연대를 통하여 자신의 신원과 역할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을 얻고 있었다. 반면, 교리교사는 자신의 신원과 역할을 지속시키는 데 다양한 도전(공동체 구성원과의 관계, 사회적 환경, 직무 수행)들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회 공동체가 교리교사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의식의 전환을 요구할 뿐 아니라, 그들의 신원과 역할을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주일학교, 교리교사, 청소년사목, 교리교사의 신원과역할, 청소년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identity and role of the Catechist in Sunday Schools

Lee, Jin Ok · Yoon, Man-Keun

The documents, whether the universal church or local church, clearly address the identity and role of catechists. Based on the documents,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provide formation programs for the catechists in the local church. Despite such efforts, the identity and role of catechists are regarded as a challenge that hinders animation of Sunday schools in the church.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identity and role of catechists and how they perceive these characteristics within their job performance. Thus, the study employs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by collecting data through interviews from 18 catechists affiliated with the Diocese of A.

The findings revealed four distinct categories: “catechists as lay Christians,” which highlights their role as believers; “students as the purpose of their mission,” which builds their identity as catechists; “solidarity among catechists,” which helps them enhance the identity and role through collaboration and support among fellow catechists. However,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y face various challenges in maintaining their identity and role, such as the relationships among church community members, the social environment, and their job performanc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church community to recognize and appreciate the unique role of catechists by reframing their perception of them. Additionally, the community should adopt a systemic approach to amplify and strengthen the identity and role of catechists.

Key Words: Sunday School, Catechist, Youth Ministry, Youth, the identity and role of Catechist

논문 투고일	2023년 6월 30일
논문 수정일	2023년 8월 4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3년 7월 28일
